

한반도 르네상스 구현을 위한

VIP 리포트

- 세계 M&A와의 비교를 통해 본 국내 M&A의 특징
- 기업 효율성과 성장성 제고를 위한 M&A 활성화가 시급

발행인 : 강인수

편집주간 : 김동열

편집위원 : 주원, 이부형

발행처 : 현대경제연구원

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94

Tel (02)2072-6305 Fax (02)2072-6249

Homepage. <http://www.hri.co.kr>

- 본 자료는 기업의 최고 경영진 및 실무진을 위한 업무 참고 자료입니다.
- 본 자료에 나타난 견해는 현대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작성자 개인의 견해를 밝혀 둡니다.
- 본 자료의 내용에 관한 문의 또는 인용이 필요한 경우,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(02-2072-6245)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.

목 차

■ 세계 M&A와의 비교를 통해 본 국내 M&A의 특징

- 기업 효율성과 성장성 제고를 위한 M&A 활성화가 시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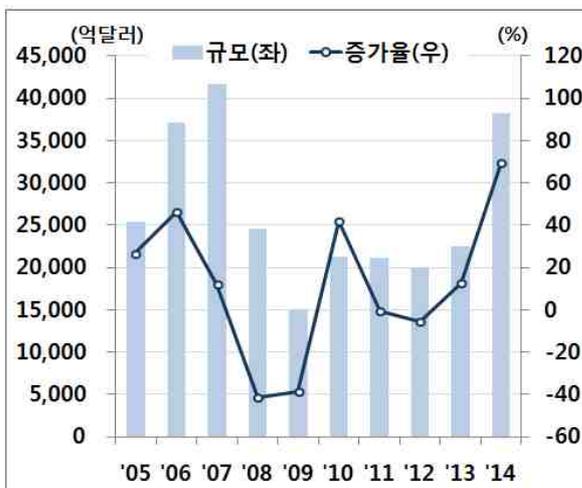
Executive Summary	i
1. 개 요	1
2. 세계 M&A와의 비교를 통해 본 국내 M&A의 특징	4
3. 시사점	10

< 요약 >

■ 개요

기업의 인수, 또는 합병을 의미하는 M&A는 기업 및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효율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어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다. 한편 최근 들어 국내외 M&A시장이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. 2014년 세계 M&A시장 규모는 3조 8,156억 달러를 기록해 금융위기 이전 수준에 근접했으며, 국내에서도 M&A 규모가 1,065억 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. 이처럼 M&A가 활성화되는 데에는 각국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으로 유동성이 풍부해진 가운데, 본격적인 경기 회복에 앞서 시장점유율 확대 및 신성장동력을 확보하려는 기업 수요, 비핵심 자산 매각 등을 통한 기업 효율화 유인 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. 이처럼 M&A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M&A가 활성화되는 동향에 따라 최근의 국내외 M&A 동향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.

< 세계 M&A 규모 및 증가율 추이 >



자료 : Bloomberg.
주 : 규모 및 증가율은 금액기준.

< 한국 M&A 규모 및 증가율 추이 >



자료 : Bloomberg.
주 : 규모 및 증가율은 금액기준.

■ 세계 M&A와의 비교를 통해 본 국내 M&A의 특징

첫째, 국경간(Cross-border) M&A가 활성화되고 있으나 전체 M&A 대비 국경간 M&A의 비중이 낮은 편이다. M&A활성화에 힘입어 세계적으로 국경간 M&A가 확대되고 있으며 한국의 국경간 M&A도 전년대비 143.8% 증가한 2014년 294억 달러를 기록하였다. 이에 따라 국경간 M&A가 전체 M&A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전년대비 9.2%p 확대된 27.6%를 기록하였으나 이는 세계 전체 M&A 대비 국경간 M&A 비중인 42.8%보다는 낮은 수준이다.

둘째, 신기술·신사업 중심의 세계 M&A 트렌드와 달리, 국내에서는 제조업 및 금융 부문을 중심으로 M&A가 추진되고 있다. 세계적으로 제약, 통신 부문의 M&A가 확대되면서 2014년 전체 M&A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14.4%, 16.6%를 기록했다. 한편 상대적으로 제조업 비중이 높은 한국의 경우 M&A에 있어서도 전체 M&A대비 제조업 부문의 비중이 2014년 21.7%로 높은 편이다. 최근 들어 특히 금융 부문 M&A가 활발해지면서 그 비중이 2009년 9.6%에서 2014년 37.4%로 확대되었다.

셋째, 세계적으로는 동종산업 간 M&A가 활발한데 비해 한국에서는 이종산업 간 M&A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. 전세계 M&A의 70% 정도가 동종산업 간 M&A로 구성된다. 한편 한국의 경우, 전체 M&A 대비 동종산업 간 M&A 비중이 하락세를 보이며 2014년 33.6%를 기록하였다. 특히 인수기업을 기준으로 유통, 소비재 부문에서 동종산업에 대한 M&A 감소세가 뚜렷하게 나타난다.

넷째, 국내에서는 현금매수, 또는 주식교환매수 형식의 M&A가 대부분을 차지해 복합매수 비중이 증가하는 세계 트렌드와 차이가 존재한다. 세계적으로 M&A규모가 커지고 외부 자금 조달 비용이 저렴해지면서 두 가지 이상의 수단을 활용하여 기업을 인수하는 복합매수의 비중이 2009년 18.4%에서 2014년 28.4%로 급등했다. 반면 국내에서는 현금매수 또는 주식교환매수를 통해 M&A를 추진하는 비중이 80%를 상회하며 복합매수는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.

다섯째, 세계적으로 M&A는 피인수기업의 지분을 100% 취득하는 '기업매수'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으나, 한국의 경우 '기업매수'의 비중은 감소하고 '주식거래'와 '자산매각'이 확대되는 모습이 관찰된다. 전체 M&A에서 피인수사업의 지분을 100% 취득하는 '기업매수'의 비중이 2009년 65.8%에서 2014년 72.6%로 지속 확대된 가운데, 동기간 '자산매각', '주식거래'의 비중은 소폭 축소되었다. 반면 한국의 경우 '기업매수'의 비중은 2009년 57.6%에서 2014년 36.2%로 20%p 이상 축소되었으며 대신 '주식거래'의 비중은 19.6%에서 33.3%, '자산매각'의 비중은 22.8%에서 32.1%로 확대되었다.

■ 시사점

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국내 기업 효율성 및 성장성 제고 방안으로써 M&A활성화 노력이 필요하다. 이를 위해 첫째, 정부는 효율적인 산업 구조조정 및 국가 경제 내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M&A 시장이 지속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·제도를 강화해야 한다. 둘째, 선진기술의 습득, 저성장 한계 극복 등을 위한 국경간 M&A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. 셋째, 기업은 세계 산업별 M&A동향을 면밀히 살펴 신산업 기회를 포착해야 한다. 더불어 국경간 M&A 동향을 주기적으로 분석해 신시장 진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. 넷째, 기업의 M&A 부담을 저감할 수 있도록 금융 부문의 다양한 방식의 매수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.

1. 개요

○ M&A의 개념 및 필요성

- M&A란 일반적으로 기업의 합병, 또는 기업의 인수를 의미
 - 좁게는 경영권을 가진 지배주주의 변경을 의미하며, 넓게는 자회사의 매각 처분 등 기존 기업의 지배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을 포괄하는 개념
- M&A는 기업 및 산업 성장을 촉진하고 효율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어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음
 - M&A를 통해 기업이 사업 확장, 또는 기업 효율화를 도모하는 과정에서 산업의 성장, 구조조정 등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음
 - 때문에 각국 정부는 M&A 시장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는데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, 우리 정부도 2014년 기업의 자율적 사업구조 재편 및 핵심역량 강화 촉진과 중소·벤처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「M&A 활성화 방안」을 발표한 바 있음

[참고] M&A의 동기 및 기대효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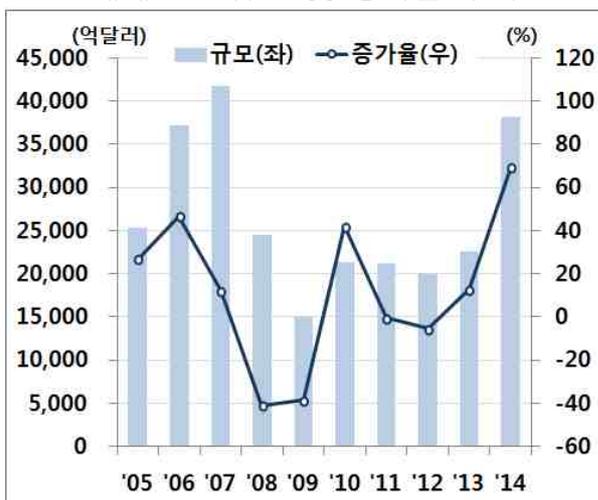
- (M&A의 동기) 기업이 M&A를 추진하는 이유는 크게 경영전략적 동기, 영업적 동기, 재무적 동기로 설명할 수 있음
 - 경영전략적 동기 : ①경영 효율의 향상, ②시장다각화, ③진입장벽의 회피, ④보유자원의 효율적 활용, ⑤첨단기술의 도입, ⑥사업계열화 등의 추진 방안
 - 영업적 동기 : 기업은 ①시장점유율의 확대, ②규모(범위)의 경제, ③단기간 내 시장참여 등을 위해 M&A를 추진할 수 있음
 - 재무적 동기 : ①위험분산, ②자금 조달 능력의 확대, ③조세절감 등을 목적으로 M&A를 추진하기도 함
- (기대효과) M&A는 효율적인 기업 경영 유도, 기업 구조조정 수행, 성장산업 형성 촉진 등의 기대효과가 있음
 - 효율적인 기업경영 유도 : M&A는 경영자로 하여금 효율적인 경영 노력을 기울이도록 유도하는 가장 강력한 외부 감시 장치 중 하나
 - 시장원리 하에서의 기업 구조조정 수행 : M&A는 민간 자원의 기업 소유권 이전 등을 통해 사양산업 또는 한계 기업의 퇴출 방안을 제공
 - 성장산업 형성 촉진 : 벤처산업 등 성장산업에서 기업 간 전략적 제휴, M&A 등을 통해 성장산업 형성을 촉진

○ **국내의 M&A 활성화 현황**

- (세계) 금융위기를 계기로 급격히 침체되었던 세계 M&A시장이 2013년 하반기부터 회복세를 보이며 2014년 전년대비 69.6% 증가한 3조 8,156억 달러를 기록
 - M&A시장은 2007년 사상 최고치인 4조 1,672억 달러를 기록한 후 급감했다 2014년 들어 총 3조 8,156억 달러를 기록하며 금융위기 이전 수준에 근접
 - 특히 2015년 1분기 M&A 규모는 8,974.7억 달러로(발표기준) 전년동기대비 25.2%, 금융위기 직후 최저점인 2009년 3분기(2,970억 달러) 대비 202.2% 증가
 - 또한 기업들이 적극적인 M&A에 나서면서 AT&T의 DIRECTV 인수(672억 달러) 등 초대형 거래가 활성화되고 건당 인수금액도 상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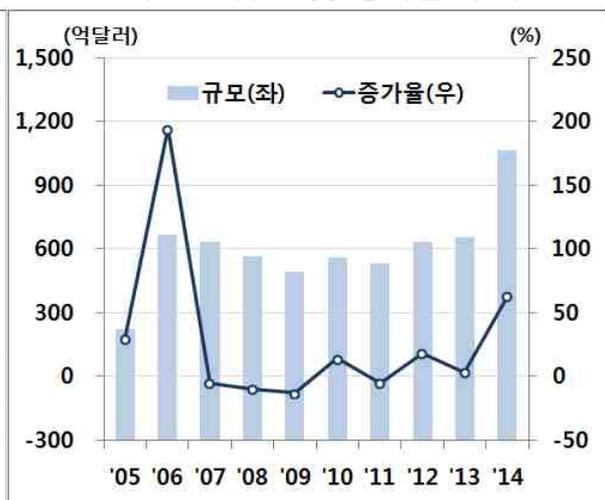
- (국내) 국내에서도 주요 기업들을 중심으로 신사업 추진, 기술 획득을 위한 M&A가 활성화되면서 2014년 들어 M&A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
 - 국내외 경기가 안정되면서 삼성, SK 등 주요 기업들이 사업 확장을 위해 국내외에서 적극적인 M&A를 추진
 - 또한 한계 기업의 구조조정, 정부의 민영화 드라이브 본격화, 매도자 주도의 M&A 거래가 다수 성사
 - 이에 따라 2014년 들어 국내 기업이 추진한 M&A규모는 전년대비 63.0% 증가한 1,065.0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
 - 평균 인수금액도 2013년 0.7억 달러에서 38.8% 증가한 0.9억 달러를 기록

< 세계 M&A 규모 및 증가율 추이 >



자료 : Bloomberg.
주 : 규모 및 증가율은 금액기준.

< 한국 M&A 규모 및 증가율 추이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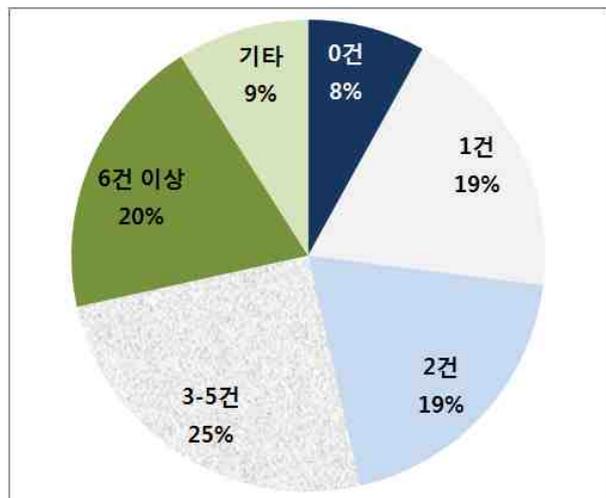
자료 : Bloomberg.
주 : 규모 및 증가율은 금액기준.

- (M&A 활성화 배경) 국내의 M&A가 활성화되는 데는 각국의 경기부양 정책에 힘입어 유동성이 풍부해진 가운데, 경기 전환기 기업의 효율성 및 시장점유율 제고 유인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
 - (대내외 환경) 각국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에 따라 풍부해진 유동성¹⁾
 - (공급 측면) 선제적인 자산 매각 등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하거나 기업 효율화를 추구하려는 기업 의향이 증대
 - (수요 측면) 본격적인 경기 회복에 앞서 M&A를 통해 시장점유율 제고 또는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기업이 증가
- 풍부한 유동성 등 환경적 요인과 고객·지역 기반을 확보하려는 기업 유인 등으로 인해 당분간 M&A시장 활황이 지속될 전망
 - 미국 기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²⁾ 따르면 조사대상의 82%가 2015년 중 1건 이상의 M&A를 계획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,
 - 이들 기업의 50% 이상이 지역 및 고객 기반 확대(각 19%, 16%), 신사업 진출(15%) 등을 목적으로 M&A를 추진할 계획
- 이처럼 국내의 M&A가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의 M&A 비교분석을 실시하고 국내 M&A시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

< 최근 M&A활성화 배경 >

구분	내용
환경 측면	- 각국의 경기부양 정책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
공급 측면	- 선제적인 자산 매각 등을 통해 유동성 확보 - 비주력사업의 매각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기업 효율 증대
수요 측면	- 본격적인 경기 회복에 앞서 시장점유율 제고 - 신사업, 신시장 진출, 신성장동력의 확보

< 2015년 美 기업의 M&A 계획 >



자료 : Bloomberg.

1) 일례로 미국중앙은행 등이 초저금리 및 양적완화 정책을 통해 막대한 유동성을 제공하면서 애플(1590억 달러), 마이크로소프트(840억 달러), 구글(590억 달러), 버라이즌(540억 달러), 시스코(470억 달러) 등(2014.6월말 기준) 기업들의 현금 자산이 급증.

2) 자료: KPMG, '2015 M&A Outlook Survey Report'.

2. 세계 M&A와의 비교를 통해 본 국내 M&A의 특징

(1) 분석 내용

- (분석대상) 2009~2014년 기간 세계 및 국내 기관의 주도로 이루어진 M&A가 대상
 - 기간: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부터 2014년까지 M&A 트렌드를 분석
 - 분석 대상 활동: 전략적 목적으로 기업 및 자산에 대한 경영권을 매수 또는 매각하는 M&A(인수합병)만을 분석
 - * 투자(소수주주지분 매입, 사모주식 투자 등), 조인트벤처 등은 제외
 - 추진주체: 세계는 전체 M&A, 한국의 경우 국내 기관의 주도로 이루어진 M&A를 대상으로 분석
- (분석내용) M&A 지역, 피인수기업의 업종, 인수-피인수 기업 간 업종차이, 결제수단, 거래유형 등을 분석해 국내 M&A 특징을 도출

< 국내외 M&A 분석 내용 >

분류	구성요소
지역별	- 국내(Domestic) M&A: 국적이 동일한 기업 간 M&A - 국경간(Cross-border) M&A: 국적이 서로 다른 기업 간 M&A
업종별	- 피인수기업의 업종 기준(자료 출처인 Bloomberg의 업종 분류를 따름) - 통신(방송·통신·미디어), 기술, 금융, 에너지, 제약(제약·생명공학·건강제품 및 서비스), 제조업, 운수·유통, 소비재 등
인수-피인수 기업 간 업종차이별	- 동종산업 간 M&A: 인수기업과 피인수기업이 동일업종에 속한 경우 - 이종산업 간 M&A: 인수기업과 피인수기업이 서로 다른 업종에 속한 경우 - 산업은 임산물 및 제지, 화학, 제철제강, 광업, 통신, 공공부문, 기술, 금융, 에너지, 운수, 유통, 자동차, 레저숙박, 건설, 환경, 기타제조업, 제약, 소비재, 상업서비스 등 19개 업종으로 구분
결제수단별	- 현금매수: 인수 대가로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 - 주식(교환)매수: 인수 회사가 기존 또는 신규 주식, 전환사채 등 유가증권을 교부하고 피인수 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 - 차입매수: 외부 자본 차입을 통해 인수자금 조달 후 차입금을 상환하거나 주식으로 전환하는 방식 - 복합매수: 현금, 주식, 차입 등 두 가지 이상의 수단을 활용해 기업을 인수하는 방식
거래유형별	- 자산거래: 비상장회사의 (전체 또는 일부) 지분, 또는 사업단위의 매각 및 인수 - 주식거래: 인수기업이 피인수기업의 총 소유권 50% 이상을 차지하게 되는 주식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- 기업매수: 인수기업이 피인수기업을 완전히 인수하는 경우(예를 들어, 인수기업이 피인수기업의 지분 100%를 인수하거나, 피인수기업의 100% 소유권을 제공한 기업으로부터 잔여 지분을 매수)

(2) 세계 M&A와의 비교를 통해 본 국내 M&A의 특징

① (지역별) 국경간(Cross-border) M&A가 활성화되고 있으나 전체 M&A 대비 국경간 M&A의 비중은 세계 평균 대비 낮은 편

- (세계) M&A 활성화와 더불어 세계의 국경간 M&A도 확대되는 모습

- 2014년 세계 국경간 M&A 규모는 1조 6,337억 달러를 기록해 2013년 9,887억 달러 대비 65.2% 증가
- 한편 전체 M&A에서 국경간 M&A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(43.9%)과 비슷한 42.8%를 기록

- (국내) 2014년 들어 전체 M&A 대비 국경간 M&A 비중이 전년대비 9.2%p 확대된 27.6%를 기록했으나 세계 수준(42.8%) 대비 낮은 편

- 2014년 국내 기업이 추진한 국경간 M&A는 2013년 121억 달러 대비 143.8% 증가한 294억 달러를 기록
- 이에 따라 국경간 M&A가 전체 M&A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전년대비 9.2%p 확대된 27.6%를 기록
- 다만 이는 세계 전체 M&A 대비 국경간 M&A 비중인 42.8% 대비 낮은 수준

< 세계 국경간M&A 규모 및 비중 추이 > < 한국의 국경간M&A 규모 및 비중 추이 >



자료 : Bloomberg.

주 : 1) 규모는 금액기준.
2) 비중은 전체M&A대비 국경간M&A 비중.



자료 : Bloomberg.

주 : 1) 규모는 금액기준.
2) 비중은 전체M&A대비 국경간M&A 비중.

② (산업별) 세계적으로 신기술·신사업 목적의 M&A가 활성화되는 반면 국내에서는 제조업 및 금융 부문을 중심으로 M&A가 활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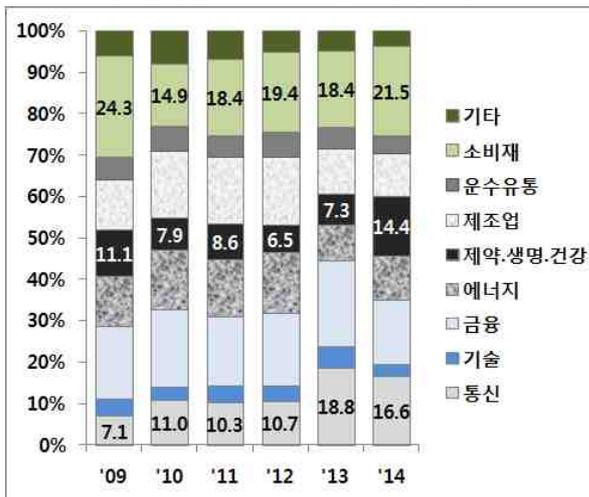
- (세계) 제약, 통신 부문 M&A 비중이 급격히 확대되는 등 신기술·신사업 기회 모색이 활성화되고 있음

- 제약(제약·생명공학·건강) 부문 기업에 대한 M&A는 2014년 들어 전년대비 256.2% 증가한 6,163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체 M&A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4.4%로 확대
- 또한 통신(방송·통신·미디어) 부문에서 M&A 거래도³⁾ 활성화되면서 전체 M&A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9년 7.1%에서 2014년 16.6%로 확대
- 전문가들은 향후 제약, 통신 부문 외에도 에너지, 소비재 등 부문의 M&A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

- (국내) 제조업 및 금융 부문 등을 중심으로 M&A가 활발한 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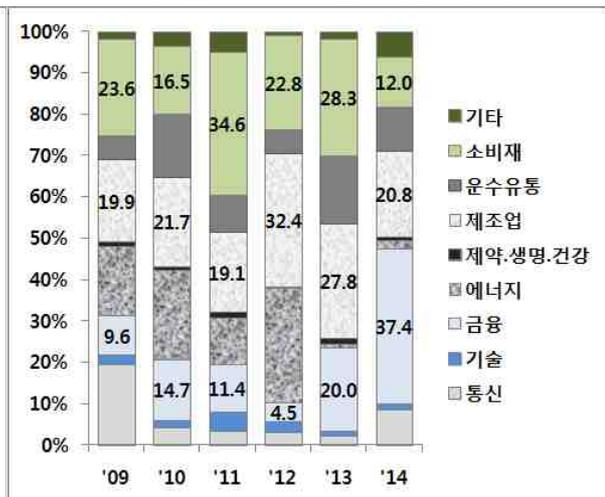
- 상대적으로 제조업 비중이 높은 한국의 경우 M&A에 있어서도 제조업 부문의 비중이 높은 편으로 전체 M&A대비 비중이 2009년 19.9%에서 2014년 20.8%로 높은 수준을 유지
- 최근 들어 특히 금융 부문 M&A가 활발해지면서⁴⁾ 동기간 전체 M&A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.6%에서 37.4%로 확대

< 세계 M&A의 산업별 비중 추이 >



자료 : Bloomberg.
주 : 비중은 금액 기준.

< 한국 M&A의 산업별 비중 추이 >



자료 : Bloomberg.
주 : 비중은 금액 기준.

3) 구글과 WPP(세계 최대 광고 기업)는 2014년 상반기에만 각각 22건, 31건의 M&A를 추진. 그 외 페이스북의 WhatsApp인수(160억 달러), AT&T의 DIRECTV인수(655억 달러), Comcast의 Time Warner인수(685억 달러) 등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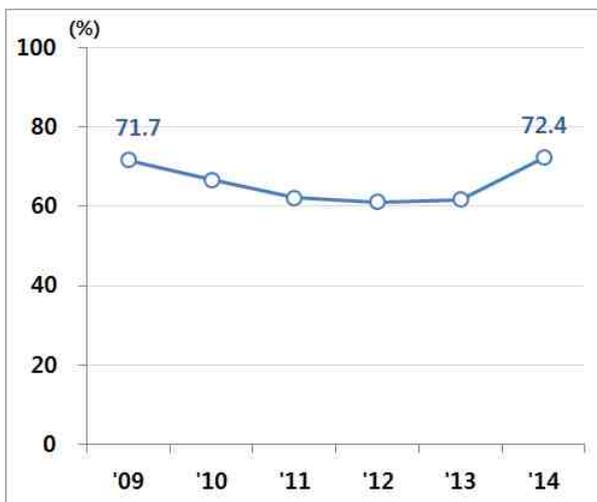
4) 대만 유안타그룹의 동양증권 인수(2014.3.13, 계약체결 기준), 농협금융지주의 우리투자증권 인수(2014.4.11), 에이앤피 파이낸셜(러시엔캐시)의 예나래-예주저축은행 인수(2014.3.7) 등.

③ (인수-피인수 기업 간 업종차이별) 세계적으로 동종산업 간 M&A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과 달리, 국내에서는 이종산업 간 M&A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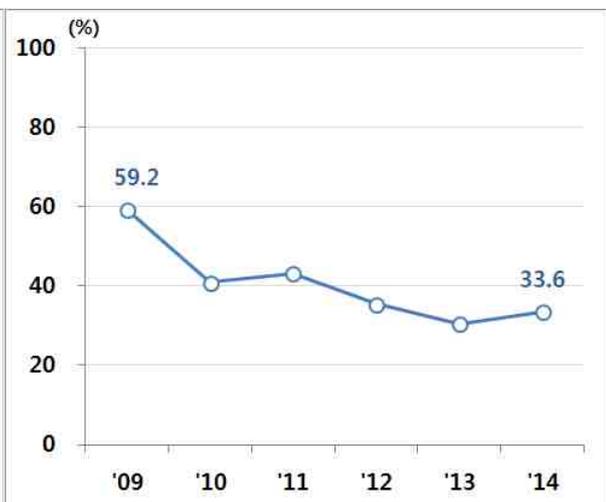
- (세계) 전체 M&A의 70% 정도가 동종산업 간 M&A로 구성
 - 인수기업과 피인수기업 간 업종 차이 현황을 살펴보면 동종산업 간 M&A 비중은 2005년 69.1%에서 2014년 72.4%로 10년간 60~70% 수준을 유지
 - 인수기업을 기준으로 통신('09, 83.8%→'14, 93.0%), 에너지('09, 86.6%→'14, 92.7%), 제약('09, 96.0%→'14, 94.8%) 등 부문에서 동종기업을 대상으로 M&A를 추진하는 경향이 특히 높게 나타남

- (국내) 국내에서는 전체 M&A 대비 동종산업 간 M&A 비중은 지속 감소하며 2014년 33.6%를 기록
 - 한국에서의 동종산업 간 M&A 비중은 2009년 59.2%에서 지속 하락해 2014년 33.6%를 기록
 - 특히 인수기업이 유통('09, 51.4%→'14, 1.1%), 소비재('09, 85.5%→'14, 48.0%) 부문에 속하는 경우 동종기업에 대한 M&A 성향 감소세가 뚜렷
 - 국내에서 동종산업 간 M&A 비중이 감소하는 데에는 기업들이 과점·독점화 리스크를 높이는 동종기업에 대한 M&A보다는 신성장동력 확보, 사업다각화, 지배구조 개선 등을 목적으로 이종기업에 대한 M&A를 선호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제기

< 세계 동종산업 간 M&A비중 추이 >



< 한국의 동종산업 간 M&A비중 추이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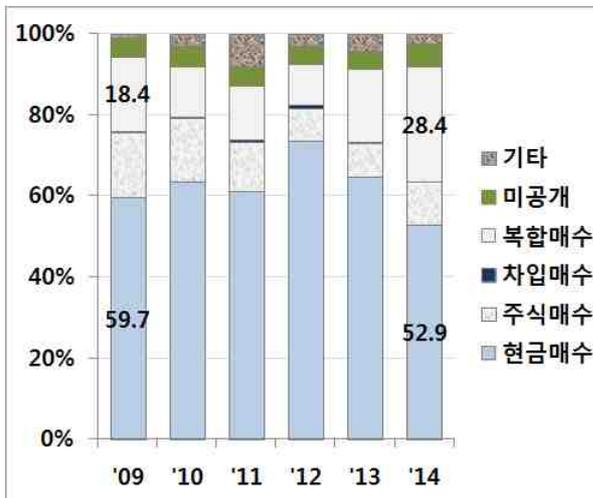


자료 : Bloomberg 자료를 토대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. 주 : 비중은 금액기준.

④ (결제수단별) 세계적으로 복합매수 비중이 증가하는 반면, 국내에서는 현금매수, 또는 주식교환매수 형식의 M&A가 대부분을 차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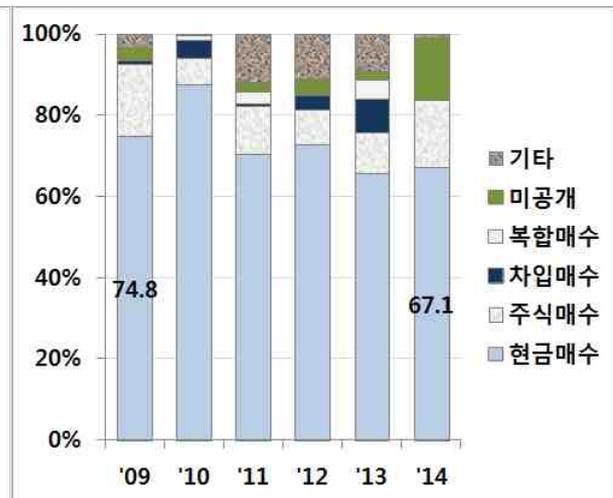
- (세계) M&A규모가 커지고 외부 자금 조달 비용이 저렴해지면서 복합매수 비중이 확대되는 모습
 - 세계 결제수단별 M&A 유형을 살펴보면, 현금매수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2009년 59.7%에서 2014년 52.9%로 하락
 - 한편 두가지 이상의 수단을 활용하여 기업을 인수하는 복합매수를 선택하는 비중은 2009년 18.4%에서 2014년 28.4%로 확대
 - 이처럼 복합매수 비중이 늘어난 데에는 첫째, M&A 규모의 대형화로 요구되는 인수자금 규모가 커지면서 현금만으로 기업매수가 어려워지고
 - 둘째, 풍부한 유동성으로 외부 자금을 활용하는데 드는 비용이 감소하면서 이를 활용하는 기업이 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
- (국내) 반면 국내에서는 주로 현금매수 또는 주식교환매수를 통해 M&A를 추진하고 있으며 두 가지 이상의 수단을 사용하는 복합매수는 전무
 - 국내 M&A 거래에서는 결제수단 미공개건을 제외하면 절차가 비교적 단순하고 신속한 현금매수가 대부분을 차지하며, 다만 2014년 들어 현금매수 비중이 하락
 - 현금매수 외에는 주로 주식교환매수를 통해 M&A가 이루어지고 있음
 - 반면 두 가지 이상의 수단(현금, 주식, 차입 중)을 활용하여 기업을 인수하는 복합매수의 비중은 거의 전무

< 세계 M&A 지불유형별 비중 추이 >



자료 : Bloomberg.
주 : 비중은 금액기준.

< 한국의 M&A 지불유형별 비중 추이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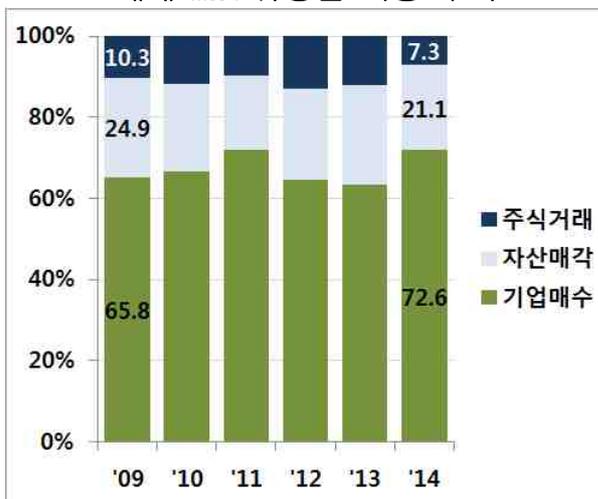


자료 : Bloomberg.
주 : 비중은 금액기준.

⑤ (유형별) 세계적으로 M&A는 피인수기업의 지분을 100% 취득하는 '기업매수'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으나, 한국의 경우 '기업매수'의 비중은 감소하고 '주식거래'와 '자산매각'이 확대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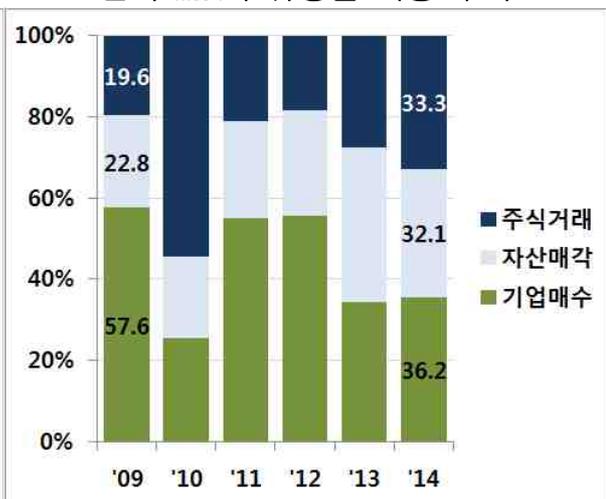
- (세계) 세계 M&A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'기업매수'의 비중이 지속 확대되고 있으며, '자산매각', '주식거래'의 비중은 소폭 축소
 - 전체 M&A에서 피인수사업의 지분을 100% 취득하는 '기업매수'의 비중은 2009년 65.8%에서 2014년 72.6%로 확대
 - 같은 기간 '자산매각'의 비중은 24.9%에서 21.1%로, '주식거래'는 10.3%에서 7.3%로 축소
- (국내) 반면 국내에서는 '기업매수'의 비중이 축소되는 가운데 '자산매각'과 '주식거래'의 비중이 확대되는 모습이 관찰됨
 - '기업매수'의 비중은 2009년 57.6%에서 2014년 36.2%로 20%p 이상 축소
 - 반면 동기간 '주식거래'의 비중은 19.6%에서 33.3%, '자산매각'의 비중은 22.8%에서 32.1%로 확대
 - '주식거래' 및 '자산매각'이 확대되는 배경 중 하나로 리스크는 최소화하면서 주력사업 보완, 유동성 확보, 특정기술 획득 등 구체적인 목표 달성을 위한 기업의 '스몰딜(small deal)' 활성화를 꼽을 수 있음

< 세계 M&A 유형별 비중 추이 >



자료 : Bloomberg자료를 토대로 현대경제연구원 계산.
주 : 비중은 금액 기준.

< 한국 M&A의 유형별 비중 추이 >



자료 : Bloomberg자료를 토대로 현대경제연구원 계산.
주 : 비중은 금액 기준.

4. 시사점

○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국내 기업 효율성 및 성장성 제고 방안으로써 M&A 활성화 노력이 필요

첫째, 정부는 효율적인 산업 구조조정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내 M&A 시장이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·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.

- 경제 성장을 견인할 신성장 동력 산업, 국가차원의 자원확보에 필요한 기간산업,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 등의 M&A 활성화를 위해 맞춤형 정책을 수립
- 국부펀드, 국민연금 등을 활용하여 국내 기업의 M&A를 적극 지원하고, 세제 및 금융 지원 등을 통해 M&A 활성화를 촉진

둘째, 국내 투자자본이 국경 간(Cross-border) M&A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.

- 국경 간 M&A는 현지 영업 기반 확보, 선진기술의 습득, 성장시장(신흥국) 진출 등의 기대효과가 있어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제기
- 특히 해외 동종기업에 대한 M&A를 추진해 규모(범위)의 경제 확보 등 기업 경쟁력 제고의 계기로 활용

셋째, 기업들은 글로벌 M&A 동향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여 새로운 사업기회를 발굴하고 성장의 동력을 확충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.

- 국내 기업들은 세계 산업별 M&A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신사업 기회를 포착하고 투자 기회를 발굴
- 전통적인 성장 전략에서 벗어나 M&A를 적극 활용하여 비교우위 요소를 확보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

넷째, 기업의 M&A 부담을 저감할 수 있도록 금융 부문의 다양한 방식의 매수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.

- 현금매수나 주식교환매수 방식은 비교적 간단하고 신속한 기업매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, 대규모 현금의 일시적 소진에 따른 기회비용 발생 등 단점도 존재
- 때문에 기업들이 환경적, 내·외부 전략적 상황에 맞게 다양한 M&A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 기법 개발 및 활성화가 필요 **HRI**

산업전략본부 전해영 선임연구원 (2072-6241, hjeon@hri.co.kr)